▼왼쪽부터 윤여정, 문숙, 백윤식, 나문희

윤여정·문숙·나문희·백윤식·임현식 …

연초부터 극장가 달구는 관록의 배우들

'그것만이 내 세상' '비밥바룰라' 등

다채로운 노년의 삶 그려 공감·감동

새해 극장가에 관록 있는 노(老) 배우들이 속속 얼굴을 비치고 있다. 30~40대 남자배우들의 멀티캐스팅과 겹치기 출연에 피로감을 느끼는 관객이라면 익숙하더라도 반가운 얼굴들이다.

17일 개봉하는 '그것만이 내 세상'에는 장년의 여배우가 여럿 나온다. 윤여정이 조하(이병헌)와 진태(박정민) 형제를 연결하고 보살피는 어머니 주인숙으로 출연한다. 도회적 이미지를 벗고 무한한 애정으로 형제를 감싸는 어머니를 연기했다. 최근 시사회에서 "나이 먹은 만큼 연기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비슷한 연령대에서 상업영화의 주연급 캐릭터를 맡는 몇 안 되는 배우 중 하나다.

'아들 바보' 어머니는 그동안 숱하게 봐온 전형적 캐릭터다. 그러나 영화의 주제를 전달하는 막바지 신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1966년 T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올해로 연기생활 53년 차인 윤여정은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경상도 사투리에 도전했다.

고 이만희 감독의 '뮤즈'로 명성을 떨쳤던 배우 문숙도 피아니스트 가율(한지민)의 할머니 복자 역으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태양을 닮은 소녀'(1974), '삼포가는 길'(1975) 등 1970년대 중반 5편의 주연작을 남기고 미국으로 떠난 그는 2015년 '뷰티 인사이드'에 출연하며 38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했다.

'그것만이 내 세상'의 윤여정과 문숙이 젊은 배우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이지만, 24일 개봉하는 '비밥바룰라'의 남자 배우 네 명은 노년의 삶을 코미디에 담아 이야기의 핵심으로 끌어들인다.

노인들이 평생 마음속에 담아뒀던 버킷 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나선다는 내용이다. 박인환·신구·임현식·윤덕용 등 주연 배우 네 명의 연기경력을 합하면 207년에 달한다. 1945년생으로 박인환과 함께 넷 중 '막내'인 임현식은 최근 제작보고회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노인 영화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영화로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나이 지긋한 배우들의 활약은 지난해부터 두드러졌다. 나문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연기한 '아이 캔 스피크'로 연말 각종 영화상을 휩쓸었고 안방극장의 '국민 엄마' 고두심은 '채비'로 오랜만에 스크린 나들이를 했다. 백윤식이 천호진·성동일과 호흡을 맞춘 '반드시 잡는다'는 스릴러로서는 드물게 노익장을 앞세웠다.

이런 변화는 고령화에 따라 장년층이 극장가 주요 고객으로 등장한 영향도 있어 보인다. CGV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관객은 전체의 10.0%로 2013년 5.7%에서 배 가까이 증가했다. 2.8%에 그친 10대에 비하면 3~4배 많다. CGV리서치센터 관계자는 "젊은층이 맛집 탐방 같은 새로운 여가에 눈을 돌리는 반면 중장년층은 취미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어서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년이나 노년층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낸 상업영화는 여전히 드문 편이다. 올해 선보일 작품 중에는 민규동 감독의 신작 '허스토리' 정도가 눈에 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로, 김희애·김해숙·예수정·문숙이 출연한다. 독립영화 쪽에서는 지난해 김혜자·송재호 주연의 '길'과 박인환·오미희의 '푸른노을' 등이 선보였지만 많은 관객의 시선을 끌지는 못했다.

'비밥바룰라'를 제작한 영화사 김치의 정유동 대표는 "어르신들에게는 내 인생 얘기 같고, 젊은 관객은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을 볼 수 있는 영화로 기획했다"며 "과거에도 어르신들 위주의 영화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우울하고 슬픈 내용이어서 다른 연령층 관객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외면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걸그룹 '티아라' 이름 못 쓴다

MBK엔터테인먼트 상표권 출원

걸그룹 '티아라'〈사진〉를 티아라라고 부르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지게 됐다.

8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MBK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28일 '티아라 T-ARA'라는 상표로 상표권 출원을 했다.

이 상표로 지정된 상품은 내려받기 가능한 음원, 벨소리, 음악공연이 수록된 전자매체, 가수공연업, 대중음악콘서트조직업, 티셔츠와 신발 등 각종 패션제품, 화장품 등이다. 이는 티아라 멤버들이 MBK의 허락 없이는 관련업을 일절 할 수 없다는 의미다.

MBK가 상표권 출원을 한 시점은 티아라의 네 멤버 지연(25·본명 박지연), 효민(29·본명 박선영), 은정(30·본명 함은정), 큐리(32·본명 이지현)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된 지난해 12월 31일보다 사흘 앞선다.

MBK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표출원을 한 게 맞다"며 "'티아라'라는 브랜드에 대해 회사에서 권리를 갖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티아라 멤버들에게 사전에 이 사실을 알렸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효민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멤버들은 앞으로 어디 있든 언제든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팀을 해체하는 게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티아라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비스트 옛 멤버들이 '하이라이트'로,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동방신기 옛 멤버들이 'JYJ'로 활동한 것처럼 새로운 팀명을 만들어야 한다.

법정 다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최장수 그룹 신화도 팀명으로 분쟁을 벌인 팀이다. 멤버들은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 상표권을 양수한 회사와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2012년부터 분쟁을 벌인 끝에 2015년 법원의 조정을 통해 상표권을 넘겨받았다. /연합뉴스

배우 이시영, 엄마 됐다 … 아들 순산

배우 이시영(36·사진 왼쪽)이 엄마가 됐다.

이시영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는 8일 "이시영이 지난 7일 오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그러면서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하며 가족들의 축복 속에 안정과 회복을 취하고 있다"며 "새 생명을 맞이한 이시영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과 축복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시영은 '영천영화'와 '샐러드영'을 운영하는 사업가 조승현(45) 씨와 지난해 9월 결혼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저글러스 (재)	50 투깝스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0 UHD 한식의 마음	55 생생정보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재)		00 12 MBC 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재) 50 미래기획 2030 (재)	10 특선다큐 영국의료제도, NHS의 위기	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5 닥터 365
2	40 월요기획 (재)	00 생활의 발견 (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15 지오메카 45 앙코르 MBC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35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재)	4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4	00 4시 뉴스집중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팔도밥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상앨범 산 (재) 30 제보자들(재)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에 웬수들 (재)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밥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
7	00 KBS 뉴스 7 35 평창 동계올림픽 G-100 특집다큐 영웅, 국가대표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저글러스(재)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특집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40 KBS 다큐 1 -스웨덴 정치를 만나다			
10	35 KBS 뉴스라인	00 저글러스	00 투깝스	00 의문의 일승
11	05 세계건강기행 25 해외걸작드라마 닥터 포스터 시즌2	10 철부지 브로망스 -절찬상영중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15 평창동계올림픽 축하콘서트 코리안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국민 응원전	35 영화가 좋다 (재)	05 발칙한 동거 빈방 있음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세계의 잔치음식 터키 결혼식, 케슈케크와 바클라바〉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몬카트
09:15 소피 루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장수의 비밀(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사과청, 사과소스 돼지안심구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메디컬 다큐-7요일
13:40 성난 물고기(재)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 화산섬의 비밀
15:00 우주탐험가 젯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엄마 까투리
16:15 두다다쿵
16:30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오늘 〈군산 보리 맛보리〉
20:50 세계테마기행 〈스리랑카 보물찾기〉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번 아웃 키즈 비긴 어게인, 교사의 탄생〉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35 메디컬 다큐 - 7요일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한국영화특선 〈우리는 형제입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9일(음 11월 23일 辛丑)

子 48년생 언제라도 늘 바뀌는 것이니 굳이 완벽한 마무리를 하려 들지 말라. 60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거대한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72년생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다면 혜안이 생길 것이다. 84년생 의연해질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3, 37

丑 49년생 예리한 판단과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61년생 상황 윤리에 어긋난다면 입지가 좁아진다. 73년생 하찮게 여겨왔던 것들 속에서 기회의 열쇠가 보인다. 85년생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8, 82

寅 50년생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불길하도다. 62년생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면서 활기차게 번성하는 운로다. 74년생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때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86년생 의무를 다 한다면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리라. 행운의 숫자 : 18, 71

卯 51년생 형세를 타개하는데 시간이 걸리겠다. 63년생 피곤하기는 해도 이득이 상당한 날이다. 75년생 악순환의 연결 고리는 과감하게 끊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생산적이다. 87년생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4, 11

辰 52년생 객관성을 일탈한다면 후유증을 동반하면서 하강한다. 64년생 원인은 돈 때문에 발생한 일임을 제대로 인식하자. 76년생 기왕이면 호환성을 띠는 것을 선택하자. 88년생 가장 실질적인 면에 매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행운의 숫자 : 20, 15

巳 53년생 지리멸렬했던 소강상태를 지나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65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을 수 있음을 알라. 77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89년생 가장 근원적인 것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80, 56

午 42년생 변화를 일으킬만한 영향력이 있다. 54년생 절제하지 않으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후회하리라. 66년생 위험하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형상이다. 78년생 최근에 관련된 것이 근간을 이루게 된다. 90년생 두말하면 잔소리다. 행운의 숫자 : 39, 92

未 43년생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노력 하다보면 적응될 것이다. 55년생 부자연스럽다. 67년생 실수가 생길 수도 있다. 79년생 활용한다면 판이한 결과를 낳는다. 91년생 불가피하다면 적극적으로 즐기는 편이 훨씬 낫다. 행운의 숫자 : 06, 93

申 44년생 너무 오래 동안 끌어오지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56년생 삼사일언 한다면 후환을 남기지 않으리라. 68년생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서 참신함을 도모해야 한다. 80년생 방향 설정을 잘 해야만 참다운 결과를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 24, 50

酉 45년생 기본적인 것이 미비한 상태라면 성과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57년생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해야만 한다. 69년생 그동안 공들여 왔던 것에 싹이 트는 국면이다. 81년생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행운의 숫자 : 92, 08

戌 46년생 낌새가 보였을 때 즉각 대처하는 것이 낫다. 58년생 일정하지 않으니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낫다. 70년생 처음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이채로움이 있을 것이다. 82년생 자신의 주관이 분명하다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9, 57

亥 47년생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감각이 요구된다. 59년생 기쁨은 짧고 아쉬움은 길 것이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임하라. 71년생 지연되었던 난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다. 83년생 시치미를 떼고 태연하게 언행 하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0, 6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